Ⅲ. 국내 날씨보험시장 현황 및 평가

1. 개괄

■ 전통적 날씨보험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음에도 여전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일부 정책성 보험만이 판매되고 있음.

○ 전통적 날씨보험상품이 국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9년 4월 삼성화재가 날씨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재정손실보험을 출시하면서부터임.[4)]

○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 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도 판매 중임.

○ 정책성 보험 외에 현재 주로 상금보상보험과 행사취소보험 등 단발성 이벤트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 실제 연평균 가입 건수가 50건도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미미함.

■ 지수형 날씨보험은 2006년 처음으로 출시되었으나, 지수형 날씨보험 역시 현재까지의 판매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 기온, 강수량, 강설량을 대상으로 삼성화재가 지수형 날씨보험상품을 출시하였으나 그 판매실적은 미미함.

---

4) 참고로 1997~1999년 (구)축협중앙회가 소 사육농가에 대해 화재 및 풍수해를 보장하는 가축공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본격적인 시행은 2000년에 시작함(송주호 · 임성진 · 김태균 2006).

○ 현대해상의 경우 태양광 발전소를 상대로 지수형 날씨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역시 미미한 수준임.

〈표 Ⅲ-1〉 정책보험 현황

구분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풍수해 보험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
도입년도			2001	2000	2008	2006
'12년 보험대상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등 35개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사슴 등 16개 및 그 축사	넙치, 전복, 조파볼락, 굴, 김 등 10개 및 그 양식시설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보상재해	특정위험방식	주계약	태풍(강풍), 우박 등	풍해, 수해, 설해, 질병, 화재	태풍, 해일, 적조, 강풍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특약	동상해, 집중호우	축사(풍해, 수해, 화재), 전기장치위험	수산질병, 양식시설	-
	종합위험방식		대다수 자연재해	-	-	-
보장수준			최대 가입금액의 85%, 80%, 70% 보장	시가의 80%~100% 수준	보험가액의 80% 한도 내 보상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90%
국고지원			위험보험료 50% 운영비 100%	위험보험료 50% 운영비 50%	위험보험료 50% 운영비 100%	위험보험료 40~90% 운영비 90%
'12년 예산 (억 원)			1,140	357	70	94
보험사업자			농협	농협 · LIG 컨소시엄	수협	동부, 삼성, 현대, LIG

주: 농작물재해보험(180%), 양식수산물재해보험(140%)은 거대재해 피해 시 국가가 재보험으로 위험보장.

자료 : 보험회사 내부자료.

2. 날씨보험시장의 부진 이유

가. 수요측 원인

■ 각 경제주체들이 날씨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피보험이익이 있는 보험수요자의 날씨리스크 헤징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

○ 날씨변화로 인한 기업의 매출 및 이익변동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부재한 상태에 있으며, 보험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도 부재함.

○ 지수형 날씨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인해 각 경제주체에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동 상품의 경우 일상적 날씨변화에 따른 손실 보전 상품이므로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비해 사건 발생 빈도가 높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액임.

■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기업들을 시작으로 날씨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확산 중이나, 리스크 관리는 현재 재고관리, 공정관리 등 기존의 사업모형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부문이 아직까지는 완전한 자유경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업체로서는 날씨리스크 관리에 대한 동기가 크지 않음.

○ 전력거래소를 통한 거래로 최저운영비용을 보장하는 구조임.

■ 정부의 날씨리스크 관리도 대재해 위주로만 치중하고 있어 기업의 일상적인 날씨리스크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함.

■ 날씨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날씨보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나. 공급측 원인

■ 전통적 날씨보험의 경우 날씨변화로 인한 매출액 변동에 대해 손해사정 경험이 부족함에 따라 실손보상이 용이하지 않아 상품개발이 어려움.

○ 날씨변동과 그로 인한 매출감소 또는 비용증가 등 발생 손해 간 상관관계에 대한 입증 곤란으로 전통적 날씨보험은 소액보상의 일회성 보험으로 이용되어 옴.

– 전통형 날씨보험의 경우 실손보상을 원칙(Principle of Indemnity)으로 함.

○ 또한, 상품체계가 복잡하고 손해사정 시 날씨로 인한 손해정도에 대해 보험계약자와의 분쟁 소지가 있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지수형 날씨보험의 경우 다양한 날씨 관련 지수개발 미비로 소비자 니즈에 적합한 상품개발 및 공급이 부진함.

○ 지수형 날씨보험은 상품개발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날씨지수 개발 미비로 상품개발이 부진함.

– 현재 기상청 및 기상산업체와의 적극적 협력 모형이 없어 다양한 날씨 관련 지수개발이 미흡함.

– 또한, 지수형 날씨보험 상품개발에 요구되는 전문 인력 및 날씨관련 손해 분석시스템 등이 부족한 것도 동 상품개발 부진의 한 원인임.

○ 날씨리스크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평가시스템 개발 노력 부족으로 지수형 날씨보험 신규상품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날씨관련 상품 개발 시 잠재적 경쟁자인 타 금융권과 비교할 때 리스크관리 능력과 축적된 경험에서 비교우위가 있음.

■ 날씨보험 가격의 적정성 결여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임.

○ 날씨리스크는 다른 리스크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고 리스크 풀링이 어려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날씨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보험회사의 보험료 산출방법 구축과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보험료를 인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3. 국내 날씨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

■ 신 · 재생에너지 및 레저산업의 성장 등 날씨리스크에 민감한 산업이 성장 추세에 있으며, 날씨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우리나라 날씨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음.

■ 제3차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최종에너지 대비 신 ·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5년 4.3%, 2020년 5.9%, 2030년 11.3%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 · 확대 정책을 적극 개발 · 추진할 계획임.

○ Swiss Re, 영국의 Willis Holdings, 동경해상, 손보 Japan 등이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실제 성과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보상하는 재생에너지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한편, Munich Re와 AXA는 태양광 및 지열 발전의 생산 부족분을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 중임.

〈표 Ⅲ-2〉 신 · 재생에너지 수요 · 목표안

(단위: 천TOE, %)

구분	2008	2010	2015	2020	2030	연평균 증가율
태양열	33 (0.5)	40 (0.5)	63 (0.5)	342 (2.0)	1,882 (5.7)	20.2
태양광	59 (0.9)	138 (1.8)	313 (2.7)	552 (3.2)	1,364 (4.1)	15.3
풍 력	106 (1.7)	220 (2.9)	1,084 (9.2)	2,035 (11.6)	4,155 (12.6)	18.1
바이오	518 (8.1)	987 (13.0)	2,210 (18.8)	4,211 (24.0)	10,357 (31.4)	14.6
수 력	946 (14.9)	972 (12.8)	1,071 (9.1)	1,165 (6.6)	1,447 (4.4)	1.9
지 열	9 (0.1)	43 (0.6)	280 (2.4)	544 (3.1)	1,261 (3.8)	25.5
해 양	0 (0.0)	70 (0.9)	393 (3.3)	907 (5.2)	1,540 (4.7)	49.6
폐기물	4,688 (73.7)	5,097 (67.4)	6,316 (53.8)	7,764 (44.3)	11,021 (33.4)	4.0
합 계	6,360	7,566	11,731	17,520	33,027	7.8
1차 에너지 (백만TOE)	247	253	270	287	300	0.9
비중	2.58%	2.98%	4.33%	6.08%	11.0%	

자료: 지식경제부(2008. 12), 「제3차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계획」.

■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 중 레저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과 미국에 비해 2.6~2.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비중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5)]

○ 2007년 레저시장 규모는 GDP의 3.7%로 33조 2,440억 원으로 추정됨.

○ 리조트의 경우 국내에서 약 40여 개에 해당하는 업체가 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들어 약 1조 원에 달하는 시장규모를 나타냄.

5)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08. 4), 「국내레저산업현황 및 성장성 전망」.

■ 최근 들어 기업뿐만 아니라 기상청을 비롯한 정책당국도 날씨리스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날씨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도 날씨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초기 서너 군데였던 민간 기상사업자는 2012년 3월 말 현재 135곳으로 늘어남.

– 민간 기상사업 규모가 1997년 4억 7,000만 원이던 것이 2010년 644억 원, 2011년에는 1,567억 원으로 성장함.

■ 지수형 날씨보험은 전통적 날씨보험에 비해 장점이 많기 때문에[6] 기존의 정책성 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할 경우 향후 날씨보험시장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농작물 관련 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6)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IV.1. “지수형 날씨보험의 장단점” 참조하기 바람.